

오 섬 훈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by Oh Seom-Hoon

# 프라하에서 부다페스트로

From Prague to Budapest

※ 이 글은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이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해외건축탐방으로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빈,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여행하고 느낀 점을 쓴 것이다.

### 2004. 11. 25.(Local time)

암스텔담 공항에서 프라하공항(KL 3123)...

"D26에서 D24로 바꿨어" 누군가가 고함친다. 현지시간으로 boarding time이 6:55(pm)이었는데 시간이 연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26gate에서 기다렸는데 암스텔담 공항답게 Transit손님이 많아서 변동이 많은게 아닌가 했는데, 역시 불행하게도 예측이 들어 맞았다. 부랴부랴 24gate로 옮겨서 또 한시간 기다려서 타고... 프라하공항행 비행기 속이다.

암스텔담 공항의 도착이 환상적 분위기였다. 자욱한 안개 속에 희미한 불빛 point들이 여기저기... 예로틱한 분위기를 물씬 나게 만들었다. 12시간 비행후 4시간 대기 후 1시간 30분 비행 후 도착 예정... 길긴 길다.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Transit) 도착한 암스텔담 공항 면세점에서 본 꽃신 같은 홀랜드 전통신, 타일로 만들어진 각종 공예품 등이 10여 년 전 온가족이 함께 왔던 기억을 갑자기 떠오르게 한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 내년 말이나 그 언저리에는 꼭 같이 가리라.

### 2004. 11. 26. (Local time) / 프라하(Praha)의 첫 밤

식수온천지대로 유명하다는 카를로비 바리(Karlovy Vary)에서 2시간 남짓 들어와 프라하 시내 한가운데 있는 맥주창고였던 U KRAKAVCU에서 저녁 겸 일행들의 간단한 소개와 와인을 했다. 13세기부터 있었다는 볼트(vault)로 된 내부 천정이 아름다웠다. 조적 볼트로 인한 자연스런 내부

인테리어 분위기가 조명과 잼 연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잼 공연 중 선구자 멜로디가 나오자 일행 중 김종국(건원건축) 사장께서 즉석 가곡연창을 하여 마치 와인 레스토랑 전체를 전세 낸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일행들의 각자 소개와 명함 교환이 있을 후 서로서로 얘기꽃을 피웠다. 더구나 바이올리니스트가 우리를 자리로 와서 연주를 해서 더욱 더 그런 것 같았다. '베르...'라는 악수 같은 독주를 한잔 하고, 체코 맥주, 체코산 와인 등으로 몸들이 많이 풀려서 맘들도 자연히 편해진 것 같았다.(사진 1)

식사 후 본 프라하의 야경, 특히 보름달이 인상적이었다. 누군가가 "보름달은 동서양의 차이가 없구나"하였다. 'Full moon'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그 보름달은 사람들을 에로틱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았다. 다들 한마디씩 중얼거렸다. 그 영향 탓인지 곧장 숙소로 들어가는데 망설여졌다. 일부는 술집으로 가고, 옆에서 김선양단장이 프라하 성의 야경을 보고 싶다고 하여 가까이 동참하기로 하였다. 일행과 분리되어 블타바강에

걸려있던, 아까 카를로비 바리에서 시내를 들어오면서 지났던 다리도 다시 가서 강가의 야경을 보면서 프라하 성의 야경을 보기로 했다. 약 5~10분 정도 가니 야경들이 들어왔다.

체코 정부에서 중요 공공건물만 조명한다고 했다. 야간 경관을 계획했다는 말이다. 야경의 강 풍경이 아름답기는 했지만 좀 멀어서 가는 건 포기하고 사진만 찍고 다시 저녁 식사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냥 들어가진 아깝고 아는 데는 잘 없고... 그래서 일단 시내 야경을 좀 즐기면서 적당한 맥주바에서 맥주 한잔 하자고 했다. 그럴 듯해 보이는 뒷골목을 들어가서 돌아 나오기로 했다. 행운이었던지 결론적으로는 생각보다 좋은 코스를 잡았다(지금 생각해보니 그 장소는 구시가 중심지였고, 틴(Tyn)교회 근처였다).

흔히 영화에서 보던 유럽의 뒷골목 같은 데를 들어갔다. 차량들도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폭의 골목이었다. 1층에서는 곳곳에 Bar들이 있었다. 한 곳에 들어갔더니 젊

은이들만 잔뜩 있는 곳이 있었는데, 우리의 형색이 그 분위기를 도저히 따라 갈 수 없어 다시 나와서 걸었다. 좀 지나 막다른 길의 왼쪽으로 돌아가니 바로 호텔 같은 블록의 피로티를 통과하니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장소가 나타났다. 이형으로 생긴 넓은 광장 같은 곳이었다. 분위기들이 차분하고 길거리의 바에는 젊은 애들이 많았다면 이곳은 나이가 좀 있는 어른들도 있었다. 그래서 맘도 좀 안심되면서 근처에서 한잔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약간의 기괴한 빛깔의 조명을 받은 성당이 나타났다. 두개의 장식적이고 고딕적인 첨탑이 하늘을 찔렀다(이게 틴성당이었다).

근처 두 집을 놓고 이쪽 저쪽 망설이다 한 군데를 들어갔다. 처음 들어가고 싶은데는 밖에서 보니 자리가 없어 보여 다른 곳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자리를 권했다. 그런데 분위기는 영 아니었다. 그런 차에 드링크만 팔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나와서 원래 끌려던 집을 다시 들어가서 물었다. 맥주창고와는 달랐지만 그에 못지않은 내부 공간과 분



〈사진 1〉 맥주창고였던 레스토랑 내부 - 프라하



〈사진 2〉 Karlovy vary가는 길 - 맥주호프 재배농장



〈사진 3〉 Karlovy vary - 거리 곳곳에 있는 식수온천지다운 수도꼭지

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꼬불꼬불한 통로와 낮은 높이... 메인 홀 역시 조적볼트 구조였지만 치장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네들이 추천하는 Chimay맥주를 마셨다. Trappist수도원에서 만들었다는 맥주인데, 마시지 말고 음미하라고 쓰여 있었다. 손님들도 많지 않아서 나름대로 차분한 분위기가 좋았다. 낮에 갔던 카를로비 바리(Karlovy Vary)는 벌써 다 잊은 듯 했다. 그곳은 약수온천지역이라 독특한 머그잔-빨대가 달린-이 인상적이었다. 치료목적인 온천이라 했다. 한국식 내지는 일본식 야외온천을 기대했던 우리들은 영 실망했지만, 그곳의 풍경은 나름대로 인상적이었다. 강 지류를 중심으로 전통적 양식들(16~17C)의 건물들로 쪽 들어서 있었다. 그래도 사우나는 해야 한다고 다들(일부 빼고) 수영장과 사우나를 갔다. 필자는 수영복이 없는 관계로 사우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잘 보냈다고들 했다. 그래도 야외수영장도 좋아보였으나 온도가 낮아서 추웠던 것 같았다.

이곳(Karlovy Vary)도 좋았으나 오히려 프라하에서 이곳까지의 길과 그 풍경들이 훨

씬 좋았다. 넓은 경작지들은 구획이 없어 인상적이었는데, 사회주의 시절의 공동경작의 영향이 남아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공동분배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유는 개인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체코의 유명하다는 맥주의 호프(?) 제작 풍경이 인상적이었다.(사진 2, 3)

**2004. 11.27. / 프라하 시내를 돌면서**

오늘은 하루 종일 시내에서 보내는 코스를 잡았다. 먼저 프라하 성에서 황금소거리, 카렐교, 구시가지 광장, 바블라프 광장, 마지막으로 공식일정에는 없었던 게리의 댄싱하우스(?)를 봤다.

전체적인 인상이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블타바(VLTAVA)강을 중심으로 한 야경과 다리들, 길과 광장으로 곳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길의 문화, 어떤 종류의 건물이든 거의 가지고 있는 붉은 지붕(사진 4). 이 3가지가 프라하 시내의 전체적인 인상을 지배하는 것 같다. 특히 길의 문화가 독특한 것 같다. 지도를 보면 아마도 도로율이 굉장히 높으리라 생각된다. 중세(中世) 도시의 특징일 수 있는지 몰라도 구시가지의 대부분 도

로의 폭이 5~6m는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마을(북촌, 안동 등)의 골목길 개념은 없는 것 같다. 유일하다면 황금소거리-연금술사들이 만들었다는, 그리고 카프카가 집필했다는 곳이 있는-의 도로폭 정도가 연상될 정도다.(사진 5) 도시 형성의 배경이 중세여서 그러한가? 즉 마차 등의 교통수단 때문에 폼페이도의 도로폭이 정해졌다는 얘기가 떠오른다. 아마도 그와 비슷한 뭔가 있었을 것 같다. 도로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도로를 향해서 가려면 내지는 벽면을 형성해서 도로의 공간감을 한층 더 긴장되게 한다는 것이다. 황금소거리(Zlata Ulicka)에서 카렐교(Karlův Most)로 오는 길목들과 교회나 상업건물의 도로쪽 입면-그 뒤의 박공지붕이 정면에 투영되지 않고 가벽을 처리해서 정면을 만든다-등에서 느껴진다.

또 프라하 성의 정문에서 시작하여 일련의 장소들을 거쳐서 블타바강이 내려다 보이는 길(아마도 Stove, zam schody인 것 같다)을 거쳐 큰길에 이르는 과정은 가히 한편의 드라마 같은 느낌을 준다. 궁의 정문이 옛날처럼 주변에 물이나 계곡으로 분리되어 있



(사진 4) 프라하 시내 전경



(사진 5) 황금소거리 - 프라하 성 인근



(사진 6) 프라하 성에서 블타바강으로 가는 길목 - 이쁜 노점들과 관광객들로 붐빈다.

있으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사진 6)

카프카가 이 프라하 성을 배경으로 '성(城)'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읽어 보고 싶다. 특히 황금소거리에 머물면서 썼다니 더욱 궁금하다. 정면에서 처음 만나는 작은 중정을 지나 가운데 비교적 큰 정방형의 중정을 만난다. 이곳에서 좀 왼쪽으로 가면 다음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비타 성당의 정문과 만난다. 찰스부르크가의 지배 흔적을 보는 왕궁을 거쳐서 황금소거리에 이르면 그 공간적 경험은 절정에 이른다. 골목길들과 2층의 군사 박물관 거리는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또 하나의 폐쇄된 길을 내부에서 경험하게 해준다.

이를 거쳐 나와서 계단을 내려오면 달리 보르탑-감옥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거쳐 정원을 지나서 궁담을 나오면 그 영역의 마지막 길인 듯한 곳을 지나서 관문 하나를 통과해 나온다. 순간 온갖 미로를 벗어나서 탁 트인 블타바강을 내려다보면서 경사 길을 내려오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한꺼번에 빠져 나오게 되므로 그 길의 밀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더구나 길옆

으로 직경 1.5m 가량의 노점상각 단위들이 보기 나쁘지 않다)들이 진을 치고 있어 더욱 더 그렇다.

오전의 마지막 투어였던 카렐교 역시 대단했다. 어차피 동서로 건너야 하는데, 이 다리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 성네포목의 조각상을 비롯해서 여러 전설 때문에 그리고 강을 건너야 하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불똥다. 한강 스케일 보다는 작지만 세느강 보다는 넓어서 강 이쪽 저쪽의 긴밀한 맛은 떨어진다.

또 다른 고밀도 지역은 역시 구시청사가 있는 구시가지이다. 특히 구시청사 건물에 있는 천문시계는 정각 5분에 창문에서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의 12제자와 베드로의 닭과 조각상들의 움직임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든다.

가이드 말로는 연말 자정 때 천문시계 앞의 커피숍의 커피 한잔 값이 70만원 정도한다고 한다. 주변에 밀집해 있는 상가들과 틴성당 등의 명소가 더욱 더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사진 7) 다른 곳을 못 봐서 아쉽다. 미루어 짐작컨데, 중세적 풍경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공간적 다양함의 보고임에도 틀림없으리라

마지막으로 본 거리의 건물-진저와 프레드라는 댄서 이름을 딴 건물-은 아간에는 너무 죽어 있다. 국가시책-옛날 중요 건물만 조명함-때문에 그런것 같고 기둥들이 인도 위에 있는 것은 참 이상했다. 그런 것을 허용한 프라하시도 이해가 안 됐다. 밤이어서 그런지 책에서 본 것을 확인한 이상의 느낌을 주지 못했다.

**2004. 11. 28. / 빈(Wien)에서 첫날을 - 실내악의 밤**

프라하에서 4시간 남짓 E59도로를 타고 빈(Wien)에 12시경에 도착했다. 가이드와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여 약간의 시간을 지체하였다. 이 행사의 주관은 사협회에서 하면서 여행의 기획을 서울경제 신문과 솔빛 여행사가 했는데, 세세한 여행 답사지 등이 그에 못 미치는 듯해서 좀 아쉬웠다.

Stephan platz의 성 슈테판 성당과 Plague column이 있는 그라벤(Graben)광



(사진 7) 프라하의 또다른 중심지인 구시청사광장



(사진 8) 도나우강과 링 로드를 경계로 성스토펜성당을 중심으로 8개 정도의 철망이 서 있는 빈구시가지의 모습



(사진 9) 비엔나 스테판 광장에서 왕궁가는 길의 해프닝들

장 같은 길을 지나 왕궁과 영웅광장 등을 구경했다. 도시구조나 길의 열개는 프라하에 비해 좀 단조로운 느낌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모노톤(monoton)이었고, 평면적이어서 그런지,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에 해당되는 곳만 보아서 그런지... 아마 후자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관광지도-엑소노메트릭으로 건물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를 보니 Ring Road와 도나우강을 경계로 가운데 성 스테판 성당의 종탑을 중심으로 8개 정도의 침탑이 그 경계를 따라 서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나?(사진 8, 9, 10)

다음날 오전의 비엔나에서 여정은 중앙 묘지의 음악가 묘지와 쇤부룬(Schonbrun) 궁전 관람으로 마무리 했다. 비엔나는 어젯밤 실내악(관현악단과 가수, 댄서)의 밤-시트라우스 공연관-에서 느껴지듯 철저한 관광 산업화가 되어 있었다. 전혀 시설 투자 없는 공연장의 성황이나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음악가들 내지는 유명인들을 한 군데 집합시킨 납골묘나(빠없는 납골묘와 가

족들 빠가 있는 묘는 약간 다르다) 심지어 초대 대통령부터 마지막 대통령까지 한 군데 모아 놓고 이들을 관광 산업화 시키고 있었다.(사진 11, 12)

**2004. 11. 29. / 부다페스트의 밤**

다들 실망을 해서 다시 체코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밤늦게 도착해서 내일 하루가 마지막이므로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이 저녁 후에도 적당한 프로그램을 찾게 만드는 이유였던 것 같고, 또 하나 여기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으리라.

부다페스트의 첫날밤은 나름대로 실망감을 안은 채 변죽만 울리고, 체코 프라하의 야경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보는 것으로 족해야 했다.

가이드 말이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다는데, 이런 정도의 야경은 프라하나 빈 등에서도 충분했는데...(그러나 다음날밤 다뉴브강 선상 투어는 이 느낌을 완전히 바꿔주었다)

빈의 거리 풍경이 풍성하고 화사한 이미지를 주었다면 부다페스트는 많이 떨어진다.

소독차이도 많이 난다는데, 그 차이가 밤에도 느껴진다.

**2004. 11. 30. / 부다와 페스트가 부다페스트 만든다**

어젯밤의 기억-빈에서 밤늦게 도착해서 부다페스트 첫인상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과는 달리 부다페스트의 지형과 건물들이 Duna강(다뉴브강)변 주변의 경관들과 언두라스 거리 주변들의 풍광은 전체 느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특히 선상에서 다뉴브강을 따라 투어한 강변 코스(왕복 1시간 남짓)는 화려한 야경 탓 인지 어디 또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해주었다.

가이드의 해박한 지식(박사완료) 덕택에 헝가리의 역사와 마저르 민족이란 것과 마저르족들이 들어와서 살기 전에 원주민으로써 로마(Roma)인들과 (그때 지명이 아킨콰이였음 '물'의 의미) 흥노(훈족, Ungers 등으로 불리기도 했음)들이 살고 있었으나 우랄산맥 서쪽에 살던 마저르족이 이리로 와서 정복 후 정착했다고 한다. 1230여년 경에 몽고족



〈사진 10〉 근대건축을 연 세제션 빌딩



〈사진 11〉 관광상품화 된 빈의 요한시트라우스 공연



〈사진 12〉 묘지조차 관광상품화시킴-역대 대통령들만 모아 별도의 묘역을 만들 정도

의 침입을 받은 후에 수도를 현 부다 언덕으로 옮겨서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의 부다(물의 의미-헝가리어)는 구시가지이고 강 동쪽의 페스트(벽돌공장의 의미)는 신시가지라고 한다. 이곳 지명도 이 두 군데의 합성 결과이다.(사진 13) 이 두 곳을 잇는 다리가 처음에는 150여년 전(?) 체인브리지(세체니브리지?)였고, 현재는 주로 마리아브리지(체인브리지는 오래됐으므로 차량무게에 제한이 있고 그 오른쪽은 metro line)을 주로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겔라언덕이다. 자유여신상과 과거에 감옥이었던 곳을 박 물관, 레스토랑 등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뉴브 강변에 중심한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유네스코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으로 등록되어 전기료의 70% 정도는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사진 14, 15) 선상에서 광주시청에서 오신분과 도심지 간판 규제와 아파트의 피로티 등 공공성 제공 시 보전 방안 등을 얘기하면서 잠시 비판적이 되었다. 왜 우리는 이지경이 되었을까. 한쪽 분야에서만 너무 급히 빨리 가버렸나? 우

리에게 남겨지고 내려온 유산은 뭘까? 또 뭘 자랑스레 넘겨줄 수 있을까?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싶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났다. 같이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지금 생각하니 아득한 기분이 들 정도로 언제 갔다 왔나 싶다. 여행 당시 그날 그날 조금씩 적은 글이라 좀 거칠고 분위기 어색한 곳도 된다. 현장감 있는 느낌이 그곳에서의 기억을 불러내는 것 같아 그냥 적는다. 일주일 남짓 본 동구는 지형 차이로 인해서 주는 모습이 프라하나 빈, 부다페스트의 차별을 짓게 해주는데 큰 요소가 된 것 같다. 그 도시의 정체성은 비단 지형적 차이 뿐 아니라 '문화'-삶에서 비롯된 여러 양상들-적차이나 인프라의 차이가 중요한 형성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형성되었을 이 지역의 '문화' 유산은 가이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 줘도 교과서 수준 이상의 것은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가끔 여행에서 느끼는 이방인

같은 느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과 그냥 참고사항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네들의 살아가는 틈바구니 속에 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시간은 스트레스 해소, 휴식만으로 치부하기엔 벅찬 느낌이 쌓인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



(사진 13)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왼쪽의 부다지역과 오른쪽의 페스트지역이 나뉘



(사진 14) 다뉴브강가의 야경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함



(사진 15) 페스트의 영웅광장 근처에 있는 현대건물